

독일어와 한국어의 사동사 의미구조

이재술(경상대)

1. 머리말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독일어와 한국어의 사동사 의미구조를 비교 연구하는 데에 있다. 독일어와 한국어의 사동사 의미구조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독일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두 언어의 동사영역의 의미구조를 고찰하기 위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어에서 사동사를 만들어내는 조어수단은 조어수단이 결합되지 않은 순수사동사 이외에 ab-, an-, auf-, aus-, be-, durch-, ein-, er-, -igen, -ieren, über-, ver-, zer-이고, 한국어에서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게하(시키)~’ 조어수단이 결합된 사동사들이다.¹⁾

조어가 공통적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서로 상이한 조어수단(파생수단)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동사 낱말들로부터 특정한 의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무리들을 구별지을 수 있다. 사동사 낱말자료의 배열원칙은 형태에 따라서 분류되지 않고 사동사 조어체계의 내용적인 구조에 따라서 진행된다.

사동사들을 정선하여 상태야기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보면 사동사들 사이의 의미적인 차이가 있게 된다. 사동사의 의미에 대한 개개의 특성표시는 상태바뀜, 사건야기와 대상(목적어)에 관계되는 강도에 따라서 분류되어 같은(비슷한) 의미적인 특성을 지닌 사동사 무리들이 구분된다.

1) 이러한 조어수단들과 결합된 전체 사동사들이 필자의 독일어와 한국어 사동사(1993, 신흥출판사)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 사동사의 의미구조

2.1 독일어 사동사

“전체 파생어들의 ‘의미적인 관점’은 공통적인 파생수단이나 기능의 관점하에서 총괄될 수 없다”²⁾고 Weisgerber는 주장한다. 사동사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며, 어떤 성능을 발휘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Weisgerber가 주장한 “언어의 전체적 고찰”³⁾에 이르게 된다. 동일한 파생어 형식 속에는 상이한 ‘의미적인 특징’이 있고,⁴⁾ 음성상으로 다른 파생방식에서 유사한 성능과 작용이 나타난다.⁵⁾ 파생동사의 구성에 대하여는 ‘낱말계층 연구 방법’이 입증되었다.⁶⁾ 형태중심적인 조어론에서 의미중심적인 조어론으로의 이행은, 상호작용에 따른 정신적인 배열방법을 통찰하기 위하여 파생유형에 따라서 얻어진 자료들을 계속해서 전개시킬 때 성취된다.⁷⁾ 낱말계층의 의미상의 효과와 사동사 성분들의 의미상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즉, 사동사의 여러 파생, 복합수단은

-
- 2) Weisgerber, L.(1971): Die geistige Seite der Sprache und ihre Erforschung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 S. 111.
 - 3) Gipper, H.(1978): Sprachwissenschaftliche Grundbegriffe und Forschungsrichtungen Band 1. Max Hueber Verlag. München 148쪽, Weisgerber는 Die vier Stufen in der Erforschung der Sprachen 149~158쪽에서 언급된 4단계의 언어연구는 고립되어 고찰되어서는 안되고 상호 보충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4) Vgl. Weisgerber, L.(1963): Die vier Stufen in der Erforschung der Sprachen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 S. 150.
 - 5) Vgl. Weisgerber, L.(1962):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 S. 218.
 - 6) Vgl. Weisgerber, L.(1969): “Die inhaltliche Geltung verbaler Kompositionstypen (synchronisch und diachronisch)” in : Sprache Gegenwart und Geschichte Probleme der Synchronie und Diachronie Jahressbuch 1968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 S. 189.
 - 7) Weisgerber, L.의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 211쪽 이하에 있는 Wortstand단락을 참고하기 바람.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고 어떻게 이해되며, 어떻게 연구될 수 있는 가이다.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낱말계층의 작용 형식이다. 파생, 합성동사의 의미적 타당성에 다음과 같은 관점이 중요하다.⁸⁾ a. 전체성의 원칙은 필수적이다. 전체성의 원칙은 개개의 조어무리들에서 낱말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필요하다. 전체 무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끼친다. 한 낱말의 고유성은 다른 것의 고유성에서 이해될 수 있다. b. 형태중심의 고찰방식에서 의미중심적 고찰방식으로서의 이행은 매우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언어의 형태적 구조와 의미적 구조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태중심의 문법 다음 단계로서 의미중심의 문법은 전체 체계에 결합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이다. c. 파생동사와 합성동사에는 차이가 있다. 형태중심의 자료수집에서 의미중심의 배열로의 이행은, 파생동사의 경우에 분명하게 되고 합성동사의 경우보다 간단하게 성취된다. 의미가 없는 전철들과는 대조적으로 부사나 불변화사는 동사의 첫 자리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분리되는 합성동사에서 불변화사는 강한 작용력을 발휘한다. d. 상이한 의미상의 가능성에 의하여 비교적 단순한 형태구조에서 하위무리의 계층이 있게 되고, 의미상의 배열을 고찰할 수 있다. 파생유형에 일치하는 일종의 형태가 있게 된다. e. 의미에 따라서 사동사들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⁹⁾

2.1.1. 상태(특성)를 직접적으로 야기시키는 사동사¹⁰⁾

외적 영역(눈으로 보거나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 알 수 있는)에서 상태 야기 또는 특성표출을 직접적으로 야기시키는 독일어 사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8) Vgl. Weisgerber, L.: Die inhaltliche Geltung verbaler Kompositionstypen (synchronisch und diachronisch) S. 202~204.

9) Vgl. Ebenda, S. 205.

10) A.βheuer, J.(1968): Gestalt und Inhalt eines Wortstandes, dargestellt an den faktitiven verben, Dissertation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 172~192.

abändern(변경시키다), abbleichen(하얗게 하다), abdunkeln(어둡게 하다),
 abflachen(평평하게 하다), abkühlen(시원하게 하다), abmatten(지치게 하다),
 anähneln(닮게 하다), anbequemem(편안하게 하다), ändern(변화시키다),
 anhaften(부착시키다), anheften(붙이다), ankränkeln(병나게 하다),
 anmachen(걸부시키다), aufbereiten(구별시키다), aufheitern(맑게 하다),
 aufhören(높이다), auflökern(느슨하게 하다), auflösen(풀게 하다),
 ausbessern(복구시키다), ausgleichen(같게 하다), ausreifen(익게 하다),
 austiefen(깊게 하다), befestigen(부착시키다), befeuchten(젖게 하다),
 begradien(바르게 하다), begütigen(가라앉히다), bekräftigen(강하게 하다),
 bernüßigen(피로하게 하다), berichtigen(바르게 하다), bessern(개선시키다),
 bläuen(푸르게 하다), bleichen(희게 하다), blenden(눈멀게 하다),
 dichten(촘촘하게 하다), dörren(건조시키다), durchkälten(차갑게 하다),
 durchwärmen(따뜻하게 하다), ebnen(편편하게 하다), eindicken(조리게 하다),
 einsäuern(발효시키다), entblößen(옷을 벗게 하다), enthärten(완화시키다),
 entleeren(비우다), entschärfen(무디게 하다), entübrigen(남기다),
 erfrischen(생기있게 하다), ergänzen(보충시키다), erhitzen(뜨겁게 하다),
 erhöhen(높이다), erkühlen(시원하게 하다), ermatten(싫증나게 하다),
 ermüden(피로하게 하다), erschlaffen(지치게 하다), erübrigen(남기다),
 erweitern(확대시키다), fälschen(변조시키다), festigen(굳게 하다),
 feuchten(젖게 하다), füllen(채우다), glätten(빛나게 하다),
 härten(단단하게 하다), heilen(낫게 하다), heizen(뜨겁게 하다),
 kirren(현혹시키다), kräuseln(꼬불꼬불하게 하다), krümmen(꾸불꾸불하게 하다),
 kühlen(시원하게 하다), kürzen(줄이다), lähmen(마비시키다),
 längen(길게하다), leeren(비우다), lichten(밝게 하다),
 lindern(완화시키다), lockern(느슨하게 하다), mattieren(운을 없애다),
 mildern(부드럽게 하다), nähern(접근시키다), öffnen(열게 하다),
 plätten(편편하게 하다), röten(붉게 하다), säuern(시게 하다),
 säubern(깨끗하게 하다), schwängern(임신시키다), schwärzen(검게 하다),
 spitzen(뾰족하게 하다), stärken(강화시키다), straffen(팽팽하게 하다),
 töten(죽이다), trocknen(말리다), trüben(흐리게 하다),
 übermüden(피곤하게 하다), übersättigen(포식시키다), verfälschen(변조시키다),
 vergrößern(거칠게 하다), verhärten(단단하게 하다), wärmen(따뜻하게 하다),
 wissen(하얗게 하다), weiten(넓히다), zähmen(훈련시키다)

감각 및 외적인 상태변화의 관점에서 erkühlen(시원하게 하다), erhitzen(뜨겁게 하다), erübrigen(남기다), ergänzen(보충시키다)이 있다.

의미적으로 같은 특성이 있는 파생어들을 총괄하기 위한 관점이다. 사동사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것을 어떤 상태로 옮기다'는 의미에서 상태야기 내지는 특성야기로서 규정된다. er-접두사와 결합된 erwärmen(따뜻하게 하다: 'warm machen'), be-와 결합된 사동사로서 befreien(자유롭게 하다), -igen접사와 결합된 사동사로서 reinigen(깨끗하게 하다) 등이 있다.¹¹⁾

목적어로서 인간이 사용되며 외적-육체적인 상태야기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일련의 사동사들은 blenden(눈멀게하다), lähmen(마비시키다), töten(죽이다), schwängern(임신시키다), zähmen(길들이다, 교육시키다), kirren(현혹시키다), stillen(침묵시키다), stärken(강화시키다), heilen(낫게 하다), lindern(완화시키다), mildern(부드럽게 하다), bessern(개선시키다), ändern(변화시키다)이다.¹²⁾ heilen, lindern, stärken, mildern은 목적어로서 사물도 취할 수 있다. 물과 관련되어서 상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야기시키는 사동사들로서 feuchten(젖게 하다), nässen(적시다), netzen(적시다), trocknen(말리다)이 있고, 온도와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상태야기를 일으키는 사동사들로서 heizen(뜨겁게 하다), wärmen(따뜻하게 하다), kühlen(시원하게 하다)이 있고, 색조와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상태야기를 일으키는 사동사들로서 bläuen(푸르게 하다), bleichen(회게 하다), bräunen(갈색으로 만들다), lichten(밝게 하다), trüben(흐리게 하다)이 있고, 맛과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상태야기를 일으키는 사동사들은 süßen(달게 하다), säuern(시게 하다)이다.

원급의 형용사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사동사들로서 breiten(넓게 하다), ebnen(편편하게 하다), glätten(미끄럽게 하다), höglen(오목하게 하다), kräuseln(곱슬 곱슬하게 하다), krümmen(꾸불꾸불하게 하다), kürzen(줄이다), längen(길게 하다), öffnen(열게 하다), plätten(납작하게 하다), rauhen(거칠게 하다), runden(둥글게 하다), schrägen(기울게 하다), weiten(넓히다) 등의 사동사는 형용사의 감각적이고 외적인 기본의미를 직접적으로 표출시킨다.¹³⁾

11) Vgl. Weisgerber, L.: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 S. 224~225.

12) Vgl. Aßheuer, J.: Gestalt und Inhalt eines Wortstandes, S. 110.

13) Vgl. Ebenda, S. 110~113.

übermüden(과로하게 하다), übersättigen에서 über-가 형용사에 있는 특성을 표출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übersättigen을 'übersatt mac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über-는 ver-와 유사한 성능을 가지게 된다. 단지 차이점은 ver-가 의도적이 아닌 실수의 의미에서 부정적(지나친) 기능이 있는 반면에 über-는 의도된 부정적 의미가 있다. übersalzen(너무 짜게 하다)-versalzen, überweiben(희게 칠하다), über- 동사들은 거의 목적어로서 사물적인 대상과 결합한다.¹⁴⁾

외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야기시키는 사동사로서 blondieren(금발색으로 하다), halbieren(반이 되게 하다)이 있다. auflockern(느슨하게 하다)과 auflösen(풀게 하다)에서 형용사의 상태가 직접적으로 야기됨을 알 수 있다. befestigen(부착시키다)를 사람에 사용할 수 없고, bekräftigen(강화시키다)은 목적어로서 사물적인 대상과 결합한다.¹⁵⁾

“Der Tee hat uns durchwärmt(차잔이 우리의 손을 아주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 Der Tee hat uns durchgewärmt(차잔의 따뜻한 기운이 스쳐갔다).”¹⁶⁾ durch-사동사들은 대부분 목적어로서 사물적인 대상과 결합되고, durchkälten(차갑게 하다)와 durchwärmen(따뜻하게 하다)만이 목적어로서 사람과 결합된다. 인간의 외적 상태야기를 목표로 하는 er-사동사는 erfrischen(생기있게 하다), erhöhen(높게 하다), erniedrigen(우울하게 하다), ermüden(피로하게 하다), ermatten(싫증나게 하다), erschlaffen(지치게 하다)이다. 물론 이러한 사동사들은 목적어로서 사람을 필요로 한다.

사동사들을 정선하에 상태야기의 유형하에서 비교하게 되면, 사동사들 사이의 차이점을 무시할 수 없다. 형용사가 지니고 있는 특성야기를 ‘형용사 + 게 하다’(Adjektiv + machen)로 바꾸어 진술하면 사동사의 상태야기 또는 특성야기가 분명하게 나타난다.¹⁷⁾ glätten(미끄럽게 하다)-glatt machen, abdunkeln

14) Vgl. Ebenda, S. 143~144.

15) Vgl. Weisgerber, L.(1958): Verschiebungen in der sprachlichen Einschätzung von Menschen und Sachen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 S. 39.

16) Vgl. Aβheuer: Gestalt und Inhalt eines Wortstandes S. 142.

17) Vgl. Ebenda, S. 172~175.

(어둡게 하다)-dunkel machen. 그러나 verinnerlichen(내면화시키다), konkretisieren(구체화시키다) 사동사들의 상태야기는 machen을 사용한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파생어와 합성어의 의미는 성분내용의 첨가로서 인식될 수 없다. 합성어는 형태소의 합계가 아니라 전체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동사의 의미 결정에 중요하다. 파생수단과 기본어의 작용은 합성유형, 낱말형태의 공동작용, 낱말발의 가능한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형용사 기본어에서 만들어진 사동사가 전체에서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구에서 상세히 기술 할 계획이다. 파생형에 대한 형태중심의 확정을 의미중심의 배열로 옮김으로써 정신적인 전체 구성에서 상이한 조어방법이 공동작용한다.¹⁸⁾

사동사의 의미에 대한 개개의 표시는 예를 들면 사건야기, 상태바꿈과 대상관련의 강도에 따라서 분류되고, 이러한 의미표시들이 무리를 이루게 된다.

인간의 정신 및 영혼적 영역에서 어떤 상태는 영향과 자극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변화는 대개 인간의 직접적 관여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다.¹⁹⁾

직접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사동사를 'machen'으로 대치시킴으로써 동사의 의미를 다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상태야기의 의미적 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에 대한 연구는 개개의 낱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서술됨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의미를 서로 비교하고, machen동사를 이용하여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사동사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²⁰⁾ 사동사로 판명된 동사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형태 및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함께 작용하는 의미'를 밝혀야 한다.

2.1.2. 상태(특성)를 간접적으로 야기시키는 사동사

내적, 정신적 영역에서 상태야기 또는 특성야기를 간접적으로 일으키는 의

18) Vgl. Weisgerber, Die vier Stufen... S. 92.

19) Vgl. Aßheuer, J.: Gestalt und Inhalt... S. 174.

20) Vgl. Ebenda, S. 175.

미에 속할 수 있는 독일어 사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abmindern(줄이다), ankränkeln(병나게 하다), anregen(환기시키다),
 auffrischen(새롭게 하다), aufheitern(상쾌하게 하다), aufmuntern(환원시키다),
 auspowern(가난하게 하다), beengen(좁게 하다), befähigen(능력있게 하다),
 befreien(자유롭게 하다), befriedigen(평화롭게 하다), begradigen(바르게 하다),
 begütigen(진정시키다), behelligen(괴롭히다), beherzigen(명심시키다),
 bekräftigen(강하게 하다), bemutigen(용기있게 하다), bereichern(부자가 되게 하다),
 bereinigen(깨끗하게 하다), berichtigen(바르게 하다), beruhigen(진정시키다),
 besänftigen(완화시키다), beseligen(행복하게 하다), betäuben(마비시키다),
 betrüben(슬프게 하다), bewürdigen(품위있게 하다), differenzieren(개별화시키다),
 durchbittern(아프게 하다), eindeutschen(독일화시키다), eindicken(조리게 하다),
 einengen(좁히다), einschüchtern(억압하게 하다), entchristlichen(파문시키다),
 entgeistigen(정신을 없애다), entmenslichen(인간다움을 없애다), erbittern(화나게 하다),
 erbosen(화나게 하다), erhärten(건고하게 하다), erheitern(기분 좋게 하다),
 erheizen(덥게 하다), ermuntern(용기있게 하다), ernüchtern(진지하게 하다),
 eröffnen(열게 하다), ertöten(죽이다), ertüchtigen(유용하게 하다),
 erwärmen(열나게 하다), erweichen(부드럽게 하다), erweitern(확대시키다),
 fanatisieren(열광시키다), heiligen(성스럽게 하다), klären(밝히다),
 künden(알리다), läuten(순화시키다), mildern(부드럽게 하다),
 profanieren(세속화시키다), säkularisieren(세속화시키다),
 schmälern(좁게 하다), sichern(확실하게 하다), sublimieren(순화시키다),
 veräußerlichen(표면화시키다), verbösem(악화시키다), verblöden(우둔하게 하다),
 veredeln(고상하게 하다), vergeistigen(정신화시키다), vergrämen(슬프게 하다),
 verhärten(단단하게 하다), verholdseligen(우아하게 하다), verinnerlichen(내면화시키다),
 vernenschlichen(인간답게 하다), verschärfen(격렬하게 하다), verschüchtern(겁나게 하다),
 versittlichen(도덕적으로 무장시키다), verwehlichen(기력을 소모시키다), verweltlichen(세속화시키다),
 verwirren(혼란시키다), zermürben(괴롭히다)

인간의 정신 및 영혼적 상태를 진술하는 동사들로서 beruhigen(진정시키다), beseligen(행복하게 하다), bereinigen(정화시키다), besänftigen(완화시키다) 등이 있다.²¹⁾ 사람에게 외적인 영향을 주는 사동사들이 의미적으로 확대되어 정신 및 영혼적인 작용을 한다. 여기에 속하는 사동사들은 befähigen(능력있게 하다), befreien(자유롭게 하다), bereichern(풍부하게 하다), beengen(부자유스럽게 하다), betäuben(마비시키다)이다. 그밖에 be-igen유형의 사동사로서 인간을 표현하는 내용영역에서 인간의 판단에 의하여 의미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동사들은 bekräftigen(강하게 하다), berichtigen(바로 세우다), bereinigen(정화시키다)이다. 단순동사에서 감성적인 기본의미로 나타나고, 파생동사에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나타난다. härten(딱딱하게 하다) - erhärten(굳게 하다), öffnen(열다) - eröffnen(개방시키다), töten(죽이다) - ertöten(사라지게 하다), weichen(연화시키다) - erweichen(유연하게 하다), wärmen(데우다) - erwärmen(따뜻하게 하다), heizen(덥게 하다) - erheizen(뜨겁게 하다).

인간의 내적인 마음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er-사동사들은 ermuntern(용기있게 하다), erweichen(감동시키다), erwärmen(열중시키다), ertüchtigen(쓸만한 사람으로 만들다), ernüchtern(진지하게 하다)이다. 정신적인 특성을 유발시키는 사동사들은 klären(밝히다), künden(알리다), offenbaren(나타나게 하다), schmälern(좁히다), läutern(순수하게 하다)이다.

목적어로서 사물적인 대상과 결합되는 사동사는 eindicken(바짝 졸여지게 하다), einschüchtern(압축시키다)이다.

이러한 동사가 정신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면 ein-이 형용사에 있는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²²⁾

파생사동사와 단순사동사의 차이점은, ver-사동사는 목적어로서 사물적인 대상과 결합하고 단순사동사는 대개 인간과 결합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목적어로서 사람과 결합된 경우에는 ver-동사에서 행위의 수행이 더 강조된다. ver-가 행위수행을 강조한 나머지, 형용사의 기본의미가 사라진 동사는 verhärten(냉혹하게 하다), verschärfen(격렬하게 하다) 등이다.

21) Vgl. Ebenda, S. 134.

22) Vgl. Ebenda, S. 152~153.

ver- 사동사의 결합가(Valenz)를 알아보기 위하여 verholdseligen(우아하게 하다)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Die Natur ist es, die ihre Bewegungen zweckhaft verholdseligt(자연의 섭리에 알맞게 운동을 우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자연이다).”²³⁾ 보기 앞의문장을 통하여 verholdseligen은 2개의 (1격의 보충어와 4격의 보충어) 결합가를 필요로 한다.

분리되는 동사부가어와 결합된 사동사에서 정신적인 포착을 느낄 수 있고, 독일어 사동사의 내용에 일치하는 한국어로의 번역이 어려운 경우도 드물지 않다. 예를 들면 verinnerlichen, ertüchtigen 등이다. 파생어에는 내용상의 특징과 정신적인 성능이 있다.²⁴⁾ ‘형용사 + machen’용법으로써 매우 다양한 사동사들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동사들에서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정확한 내용성에 대한 고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die Kenntnisse vertiefen(지식을 심화시키다)’과 같은 표현에서 동사의 전이된 내용을 ‘tief machen’ 내지는 ‘tiefer machen’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einen Graben vertiefen(무덤을 깊게하다)’에서는 ‘tief machen’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단순동사로서 감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 예를 들면 das Haar kürzen(머리를 짧게 하다), ein Messer schärfen(칼을 날카롭게 하다)에서도 가능하다. verkürzen(줄이다)과 verschärfen(예리하게 하다)은 ‘machen’을 사용하여 바꾸어 표현되지 못한다. 앞의 보기에 의하여 ‘machen’으로 바꾸어 표현되는 것은 사동사의 특정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²⁵⁾ 동사들 안에서 “세계의 언어화”²⁶⁾가 상이한 관점에 따라서 진행된다.

조어에 대한 언어포착의 공통적 방향이 규명되므로 성능중심의 고찰을 보다

23) Mann, Th.(1975): Gesammelte Werke, Bd. 4 Berlin S. 343.

24) Vgl. Weisgerber, L.(1973): Die sprachliche Gestaltung der Welt Pädagogischer Verlag, Düsseldorf S. 172.

25) Vgl. Aβheuer, J.: Gestalt und Inhalt eines Wortstandes S. 175.

26) ‘Worten der Welt’에 대하여 Weisgerber가 상세히 논술한 저서 및 논문으로서, Das Menschheitsgesetz der Sprache 및 Grundlage der Sprachwissenschaft (Zweite, neubearbeitete Auflage Quelle Meyer Verlag Heidelberg 1964) S. 74-80. “Der Begriff des Wortens”(in:Corolla Linguistica 1955 Festschrift für Ferdinand Sommer zum 80. Geburtstag S. 248-254), Die sprachliche Gestaltung der Welt(Pädagogischer Verlag Düsseldorf 1973) 등이 있다.

정확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²⁷⁾ 외적인 영역에 속하거나 원래의 의미가 전이되지 않은 동사들은 형용사 + machen으로 바꾸어 표현될 수 있다. scharfe Maßnahme(정확한 측정)의 scharf의 의미와 같은 전이된 의미나 혹은 정신적인 의미를 지닌 사동사를 ‘machen’ 용법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왜냐하면 바꾸어 쓰게 되면, 외적인 행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동사의 내용은 ‘machen’을 사용하여 바꾸어 씌으로써 왜곡되어 진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ermäßigen(경감시키다)에 대한 변형, ‘mäßig machen(알맞게 하다)’은 ‘mäßig etwas leisten(어떤 것을 적당하게 하다)’의 의미로 이해된다. 행위가 외적이고 직접적으로 간여해서 야기시키는 곳에서는 ‘machen 바꿔 쓰기’로 대치시킬 수 있다.²⁸⁾ 파생어는 특정한 성능을 지니게 되며, 내용을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시킨다.²⁹⁾ begütigen(달래다) beruhigen(진정시키다), verinnerlichen(내면화시키다)와 beseligen(행복하게 하다)를 서로 비교하면, beruhigen과 beseligen은 ruhig machen, selig machen으로 바꾸어 쓸 수 있지만 begütigen과 verinnerlichen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beruhigen과 beseligen에서 이 두 동사의 성능 목표는 실제적인 물질 대상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앞의 4개의 사동사에서 형용사의 간접적 순간이 공통적이다.

이러한 공통적 순간은 machen으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 jmdn. beruhigen에서는 ruhig(편안한)이라는 형용사의 특성이 간접적으로 야기되는 순간을 알 수 있지만, jmdn. ruhig machen에서는 불가능하다. 형용사의 상태를 야기시키는 것은 행위자(사동주)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대상의 행위성취에 의존하게 되고, 이 때에 간접적 순간을 알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을 대상(목적어)으로 하고 정신 및 영혼적 상태야기를 일으키는 동사들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동사들에서 대상(목적어, 피사동주)은 사동사의 행위방향에서 함께 작용한다. 왜냐하면 주체자(사동주)는 형용사의 상태를 단지 간접적으로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감각 및 외적대상(피사동주, 목

27) Vgl. Weisgerber, L.: Die vier Stufen in der Erforschung der Sprachen S. 101.

28) Vgl. Aßheuer, J.: Gestalt und Inhalt eines Wortstandes S. 176.

29) 독일어 조어 영역에서 내용중심의 조어론(Inhaltbezogene Wortbildungslehre)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보기들이 Weisgerber(1964)의 “Vierstufige Wortbildungslehre”에서 자세히 언급되었음.

적어)를 필요로 하는 사동사와 정신적 대상을 필요로 하는 사동사를 대립시키면, 내적인 과정은 간접적 절차에 의하여 잘 나타나고 외적인 과정은 직접적 행위 수행에 의하여 나타난다. 예를 들면, *jmdn. von seinen Fesseln befreien* (누구를 사슬에서 해방시키다)-*jmdn. von seinen Leidenschaften befreien*(누구를 정열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다)에서 어떤 사람을 사슬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befreien*을 *frei machen*으로 바꾸어 쓸 수 있지만, 정열에 사로잡힌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면 *befreien*을 *frei machen*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외적 및 내적 풍요함에 도달될 수 있는 *bereichern*(풍부하게 하다)과 같이 감성적인 의미와 더불어 전이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동사들도 일반적으로 *befreien*과 같은 경우이다. *einen Baum veredeln*(나무를 잘 다듬다) - *die Sitten veredeln* (행실을 바르게 하다), *etwas ändern*(어떤 것을 외적으로 변화시키다) - *jmdn. ändern*(어떤 사람의 정신 및 심리적 상태를 변화시키다), *das Haar festigen*(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하다) - *eine Freundschaft festigen*(우정을 두텁게 하다), *eine Parkplatz erweitern*(주차장을 확장시키다) - *den Gesichtskreis erweitern* (시야를 넓게 하다), *eine Straße erhöhen*(거리를 높게 하다) - *Steuern erhöhen*(세금을 올리다)³¹⁾ 등에서 위의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형태중심의 조어론은 파생수단과 어간어를 주로 형태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내용중심의 조어론은 파생수단과 어간어의 공동작용으로 성취되는 정신적인 내용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상태야기를 유발시키는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영역에 속하는 사동사로서 *vermenschlichen*(인간답게 하다), *entmenschlichen*(인간다움을 잃게 하다), *versittlichen*(도덕적으로 무장시키다), *entsittlichen*(타락시키다), *vergeistigen*(정신적으로 무장시키다), *säkularisieren*(환속시키다) 등이 있다. 이러한 사동사들에서 형용사의 상태를 야기시킴에 있어서 행위목적은 단지 간접적으로 도달된다.³²⁾ 언어공동체의 정신적인 면이 적절한 내용중심적인 방법으로 의식되어질 수 있는 한, 정신적인 면은 언어 내용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³³⁾

30) Vgl. Aβheuer, J.: *Gestalt und Inhalt eines Wortstandes* S. 178.

31) Vgl. Ebenda, S. 179-180.

32) Vgl. Ebenda, S. 180.

2.1.3. 대상을 포괄적으로 상징화시키는 사동사

사동주가 피사동주를 포괄적으로 상징화시키는 의미에 속하는 사동사들로서 dramatisieren(극화시키다), konkretisieren(구체화시키다), objektivieren(객관화시키다), vergegenwärtigen(생생하게 그리게 하다), versinnbildlichen(상징화시키다, 비유로 표현하게 하다) 등이 있다.

언어는 언어에 내재해 있는 힘에 의하여 현실세계를 정신의 소유물로 재창조하기 위한 길³⁴⁾로서 어휘론에서 통찰된 것처럼, 이러한 관점은 역시 조어론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³⁵⁾ 인간의 언어는 언어의 힘의 작용형식으로서 표현되고, 언어의 힘의 성능과 작용은 세계를 언어로 나타내고 정신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바탕이 조어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조어에 내포되어 있는 정신적인 형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동사의 의미구조를 연구하게 된다.³⁶⁾

언어는 정신적인 힘이며, 이 힘에 의하여 인간은 정신적으로 특정한 생활을 형성한다. 언어의 힘은 인간이 처해 있는 생활조건을 언어적으로 지배하는 곳에서 작용한다.³⁷⁾ 언어화의 4개의 중요무대³⁸⁾에서 언어의 힘이 전개된다. 정신적 영역에서 추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낱말은 언어 내재적 배열에 의하여 언어화된 것이다. 'ab-과 an-' 조어수단의 내용성은 성분구조 분석처럼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³⁹⁾ an-, auf-와 같은 불변화사는, 내용상으로 자립적인 아닌 be-, er-접두사보다 더 고유한 내용을 가지게 되고,⁴⁰⁾ 내용적으로 더 유연

33) Vgl. Weisgerber, L.: Die inhaltliche Geltung verbaler Kompositionstypen (synchronisch und diachronisch) S. 188-189.

34) Vgl. Weisgerber, L.(1953): Vom Weltbild der deutschen Sprache 1. Halbband.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 S. 14.

35) Vgl. Weisgerber, L.(1964): "Vierstufige Wortbildungslehre" in : Muttersprache 2, S. 38ff.

36) Vgl. Weisgerber, L.: Die vier Stufen in der Erorschung der Sprachen S. 5.

37) Vgl. Ebenda, S. 133.

38) Vgl. Weisgerber, L.(1960): "Die vier Schauplätze des Wortens der Welt" in : Sonderausdruck aus Erkenntnis und Verantwortung Festschrift Theodor Litt Düsseldorf 11-24쪽과 Das Menschheitsgesetz der Sprache S. 78-80.

39) Vgl. Weisgerber, L.: Die sprachliche Gestaltung der Welt S. 183.

하며, 여러 내용에 속할 수 있다.⁴¹⁾

여러 파생어들 가운데에서 의미에 따라서 몇 개의 하위모임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하위모임은 낱말형태로서 표현된다.⁴²⁾

사동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⁴³⁾라는 관점에서 내용을 다루어야 하고 동시에 타당성을 고찰해야 한다. 특히 “언어 공동체”⁴⁴⁾의 생활양식에 언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주목해야 한다.⁴⁵⁾ 조어의 작용적 고찰은 형태, 내용, 성능중심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시작될 수 있다.⁴⁶⁾ 앞의 두 종류의 의미는 분류기준은 상태야기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일으키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두 부류의 무리들에서는 사동사들이 대상(목적어, 피사동주)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반면에 세 번째 부류의 동사들은 단지 대상의 현상방식을 은유적으로 상징화(변화)시키는 사동사들이다. 목적어에 대한 사동사의 관여의 차이점(앞의 두 부류의 사동사와 비교할 때)이나 목적어를 관여하는 현상방식은 사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확정될 수 없다. 즉, 목적어를 은유적으로 상징화시키는 사동사들이 세 번째 의미에 속한다. 여기에 속하는 사동사의 행위는 서술이나 제시를 뜻한다. 사동사의 특성야기를 진술하기 위하여 사동사에 대한 목적어의 현상방식을 서술하는 것이다. 사동주가 피사동주를 포괄적으로 상징화시키는 사동사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동사와 그 밖의 사동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즉, 개개의 사용의미를 미리 형성하고 조어를 내용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조작방향의 필요성’이다.⁴⁷⁾

40) Vgl. Weisgerber: Die inhaltliche Geltung verbaler Kompositionstypen S. 201.

41) Vgl. Ebenda, S. 193.

42) Vgl. Ebenda, S. 94.

43) Vgl. Weisgerber, L.의 Die vier Stufen in der Erforschung der Sprachen S. 123ff.

44) 언어공동체와 언어사이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대한 Weisgerber의 주장이 Das Menschheitsgesetz der Sprache(Zweite neubearbeitete Auflage, Quelle und Meyer Verlag Heidelberg 1964) 28-134쪽에 상세히 서술되었으며, 언어를 통해서 언어공동체의 내적질서와 세계관을 파악하는 관점을 알게 됨.

45) Vgl. 허발(1985): 낱말발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S. 89.

46) Vgl. Weisgerber, L.: “Vierstufige Wortbildungslehre” S. 41.

47) Vgl. Weisgerber, L.: Die inhaltliche Geltung verbaler Kompositionstypen S. 192.

2.2. 한국어 사동사

사동사의 내용은 사동화되기 이전 동사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사동사의 의미는 사동화되기 이전 동사가 유정명사 주어를 취하는 동사이냐, 또는 속성을 가리키는 동사이냐, 그외에 상태를 드러내는 자동사이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가령 유정명사를 주어로 취하는 동사는 사동화되면 의지나 강제 등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 속성동사는 사동화되면 속성변화를 뜻하게 되며, 무정명사를 주어로 취하는 자동사는 사동화되면 상태변화를 낳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어 사동사는 사동화 되기 이전의 동사 의미특성에 따라 의미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입장을 수용하여 한국어 사동사를 의미에 따른 입장 즉, 사동화되기 이전 동사의 의미 특성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 알아보기로 한다.

2.2.1. 사동행위 결과 피사동주가 피동행위의 주체가 되는 동사

여기에 속하는 사동사들은 유정명사 주어를 취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들이다.

들이다(← ㉠ 들다),	속이다(← ㉠ 속다),	죽이다(← ㉠ 죽다),
눅히다(← ㉠ 눅다),	먹이다(← ㉠ 먹다),	보이다(← ㉠ 보다),
쓰이다(← ㉠ 쓰다),	묵히다(← ㉠ 묵다),	앉히다(← ㉠ 앉다),
씻히다(← ㉠ 씻다),	엎히다(← ㉠ 엎다),	업히다(← ㉠ 업다),
읽히다(← ㉠ 읽다),	입히다(← ㉠ 입다),	끓리다(← ㉠ 끓다),
놀리다(← ㉠ 놀다),	살리다(← ㉠ 살다),	올리다(← ㉠ 오르다),
울리다(← ㉠ 울다),	끓리다(← ㉠ 끓다),	들리다(← ㉠ 들다),
물리다(← ㉠ 물다),	빨리다(← ㉠ 빨다),	불리다(← ㉠ 불다),
알리다(← ㉠ 알다),	끓기다(← ㉠ 끓다),	숨기다(← ㉠ 숨다),
웃기다(← ㉠ 웃다),	감기다(← ㉠ 감다),	말기다(← ㉠ 말다),
벗기다(← ㉠ 벗다),	빚기다(← ㉠ 빚다),	신기다(← ㉠ 신다),
씻기다(← ㉠ 씻다),	깨우다(← ㉠ 깨다),	세우다(← ㉠ 서다),
재우다(← ㉠ 자다),	태우다(← ㉠ 타다),	
끼우다(← ㉠ 끼다),	씩우다(← ㉠ 쓰다),	괴롭히다(← ㉠ 괴롭다).

2.2.2. 사동행위 결과 사물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사동사

여기에 속하는 사동사들은 부정명사 주어를 취하는 자동사가 사동화로 파생된 사동사들이다. 그런데 부정명사 주어를 취하는 것 가운데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는 동사가 사동화된 경우는 또다른 의미 즉, 사동결과가 속성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이므로 별도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다음(2.2.3)에 기술된 것과 같이 사동결과가 속성변화를 가리키는 국어사동사는 이른바 형용사에서 파생된 것들이라는 점에서도 이와(2.2.2) 다른 점이 있다.

끓이다(← ㉞ 끓다), 내다(← ㉞ 나다), 녹이다(← ㉞ 녹다),
 늘리다(← ㉞ 늘다), 붙이다(← ㉞ 붙다), 삭이다(← ㉞ 삭다),
 썩이다(← ㉞ 썩다), 절이다(← ㉞ 절다), 식히다(← ㉞ 식다),
 익히다(← ㉞ 익다), 얹히다(← ㉞ 얹다), 그을리다(← ㉞ 그을다),
 날리다(← ㉞ 날다), 말리다(← ㉞ 마르다), 부풀이다(← ㉞ 부풀다),
 얼리다(← ㉞ 얼다), 남기다(← ㉞ 남다), 옮기다(← ㉞ 옮다),
 띄우다(← ㉞ 뜨다), 채우다(← ㉞ 차다), 솟구다(← ㉞ 솟다),
 비추다(← ㉞ 비치다), 적시다(← ㉞ 젖다), 기울이다(← ㉞ 기울다),
 맞추다(← ㉞ 맞다).

2.2.3. 사동행위 결과 사물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사동사

여기에 속하는 사동사들은 형용사 특히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사동화된 것이다.

높이다(← ㉞ 높다), 굳히다(← ㉞ 굳다), 넓히다(← ㉞ 넓다),
 더럽히다(← ㉞ 더럽다), 맑히다(← ㉞ 맑다), 밝히다(← ㉞ 밝다),
 붉히다(← ㉞ 붉다), 어지럽히다(← ㉞ 어지럽다),
 좁히다(← ㉞ 좁다), 불리다(← ㉞ 부르다), 비우다(← ㉞ 비다),
 키우다(← ㉞ 크다), 낮추다(← ㉞ 낮다), 늦추다(← ㉞ 늦다).

3. 맺음말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독일어와 한국어의 사동사 의미구조를 비교 연구하는 데에 있다. 두 언어에서 사동사의 의미구조의 차이는 사동사분절구조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서술될 수 있다.

사동사의 내용성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어떤 상태로 옮기다는 의미에서 상태야기 또는 특성야기로서 규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어와 한국어 사동사의 의미구조를 서술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독일어에서 사동사를 만들어내는 조어수단은 조어수단이 결합되지 않은 순수사동사 이외에 ab-, an-, auf-, aus-, be-, durch-, ein-, er-, -igen, -ieren, über-, ver-, zer-이고, 한국어에서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계하(시키)~’ 조어수단이 결합된 사동사들이다.

언어의 지속적인 형성력은 형식상의 모입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으며 여러 다른 조어수단들에서 같거나 비슷한 의미의 새로운 상위모입을 산출시킨다.

독일어 사동사는 의미상으로 1) 외적 행위영역에서 상태야기 또는 특성야기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사동사모입, 2) 내적, 정신적 행위영역에서 상태야기 또는 특성야기를 간접적으로 일으키는 사동사모입, 3) 대상을 포괄적으로 상징화시키는 사동사모입으로 분절된다.

한국어 사동사들을 의미론적 입장에서 분류하면, 1) 사동행위 결과 피사동주가 피동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동사, 2) 사동행위 결과 사물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사동사, 3) 사동행위 결과 사물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사동사로 구분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석득 (1979): “국어의 피사동” 언어 4-2, 181-192.
 김일웅 (1978): “-이-사역문과 타동사문” 논피 허웅 박사, 환갑 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183-206.
 송병학 (1984): 현대 국어의 분석, 한신문화사(서울).
 송창선 (1984): 국어 사동법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재술 (1993): 사동사의 낱말계층, 신흥출판사.
- 허발 (1985): 낱말발의 이론, 제3판, 고려대학교 출판부.
- Aβheuer, J. (1968): Gestalt und Inhalt eines Wortstandes, dargestellt an den faktitiven Verben Dissertation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
- Gipper, H. (1978): Sprachwissenschaftliche Grundbegriffe und Forschungsrichtungen Band 1. Max Hueber Verlag München.
- Mann, Th. (1955): Gesammelte Werke, Bd. 4, Berlin.
- Weisgerber, L. (1953/54): Vom Weltbild der deutschen Sprache. I. Halbband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
- Weisgerber, L. (1955): "Der Begriff des Wortens" in : Corolla linguistica Festschrift für Ferdinand Sommer zum 80. Geburtstag 248-254.
- Weisgerber, L. (1958): Verschiebungen in der sprachlichen Einschätzung von Menschen und Sachen, Westdeutscher Verlag Köln und Opladen.
- Weisgerber, L. (1962): Grundzüge der inhaltbezogenen Grammatik,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
- Weisgerber, L. (1963): Die vier Stufen in der Erforschung der Sprachen,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
- Weisgerber, L. (1964): Das Menschheitsgesetz der Sprache als Grundlage der Sprachwissenschaft, Zweite, neubearbeitete Auflage.
- Weisgerber, L. (1964): "Vierstufige Wortbildungslehre" in : (Hrsg. von L. Lipka und H. Günther) Wortbildung,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36-54.
- Weisgerber, L. (1969): "Die inhaltliche Geltung verbaler Kompositionstypen (synchronisch und diachronisch)" in : Sprache Gegenwart und Geschichte Probleme der Synchronie und Diachronie, Jahresbuch 1969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 187-206.
- Weisgerber, L. (1971): Die geistige Seite der Sprache und ihre Erforschung,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
- Weisgerber, L. (1973): Die sprachliche Gestaltung der Welt, Pädagogischer Verlag Schwann Düsseldorf.
- Dornseiff, F. (1970): Der Deutsche Wortschatz nach Sachgruppen, siebte, unveränderte Auflage Walter de Gruyter Berlin/New York.
- Drosdowski, G. (Hrsg., 1976, 1993, 2001): Duden Das große Wörterbuch der

- deutschen Sprache Bd. 1-6.
- Drosdowski, G. (Hrsg., 1981, 1992, 2001): Duden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in sechs Bänden, Bibliographisches Institut Duden Verlag Mannheim/Wien/Zürich.
- Drosdowski, G. (Hrsg., 1976, 1993, 2001): Duden Deutsches Universal-Wörterbuch, Bibliographisches Institut Dudenverlag Mannheim/Wien/ Zürich.
- Grimm, J. und Grimm, W. (1854-1960): Deutsches Wörterbuch Bd. 1.
- Grimm, J. und Grimm, W. (1984): Deutsches Wörterbuch Bd. 1-33, Deutsches Taschenbuch Verlag München.
- Mackensen, L. (1977, 2001): Deutsches Wörterbuch 9. völlig neu bearb. u. stark erw. Aufl.
- V. d. Dt. Akad. d. Wiss. (1996): Goethe Wörterbuch, Zu Berlin, der Akad. d. Wiss. Zu Göttingen und der Heidelberger Akad. d. Wiss., Stuttgart -Berlin-Köln-Mainz.
- Wahrig, G. (Hrsg., 1976, 2001): Brockhaus-Wahrig Bd. 1-6.
- Wahrig, G. (Hrsg., 1976, 2001): Brockhaus-Wahrig Deutsches Wörterbuch in sechs Bänden F. A. Brockhaus Wiesbaden Deutsche Verlags-Anstalt Stuttgart.

Zusammenfassung

Vergleichende Untersuchungen der Bedeutungsstruktur der faktitiven Verbe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Yi, Chae-Sul(Gyeongsang National Univ.)

Diese Arbeit hat sich zur Aufgabe gestellt, eine Bedeutungsstruktur der deutschen faktitiven Verben mit der der koreanischen faktitiven Verben zu vergleichen. Da vergleichende Untersuchung der faktitiven Verbe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einem Vergleich einer sprachlicher Seite von beiden Sprachen entspricht, ist die Aufgabe dieser Arbeit eine Aufstellung des Unterschiedes der Bedeutungsstruktur im Bereich der Wortbildungen der faktitiven Verben.

Als Wortbildungsmittel der deutschen faktitiven Verben gibt es ~(e)n, ab~, an~, auf~,

aus~, be~, durch~, ein~, ent~, er~, ~igen, ~ieren, über~, ver~und zer~. Als
Wortbildungsmittel der koreanischen faktitiven Verben gibt es ~i~, ~hi~, ~ri~, ~gi~,
~u~, ~gu~, ~chu~, ~ge ha~und ~siki~.

Deutsche faktitive Verben lassen sich folgende gliedern : 1. Faktitive Verben, die im
Bereich der äußerlichen Handlungen Zustand oder Eigenschaft direkt bewirken. 2.
Faktitive Verben, die im Bereich der innerlich-geistigen Handlungen indirekt bewirken. 3.
Faktitive Verben, die die Gegenstände versinnbildlichen. Koreanische faktitive Verben
lassen sich folgende gliedern : 1. Verben, bei denen Objekte Subjekte der defensiven
Handlungen nach den faktitiven Handlungen werden, 2. Verben, die den Zustand der
Sachen nach den faktitiven Handlungen verändern, 3. Verben, die die Eigenschaft der
Sache nach den faktitiven Handlungen verändern.

[검색어] 사동사, 조어수단, 특성야기
faktitive Verben, Wortbildungsmittel, Eigenschaftsbewirkung

이재술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Yichaesu@nongae.gsnu.ac.kr